

자료목록법

박종도 ▪ 202년 1학기 ▪ Week 3-1

개요

- 제2장 목록조직의 발전
 - 목록발전의 시대구분
 - 재산목록시대
 - 검색목록시대
 - 목록의 표준화시대: 근대도서관의 목록
 - 목록의 국제화시대: 현대도서관의 목록

학습목표

- 목록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목록발전의 시대구분(1)

- Dorothy May Norris의 발전과정

제1단계: 기원전(BC)~기원후 1,1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사상의 표시를 위한 기록의 시대• 고대목록
제2단계: 1,100년~1,4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세 수도원 도서관의 목록
제3단계: 1,400년~1,7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과대학에 있는 학술단체의 자료목록시대• Bodleian 도서관 목록
제4단계: 1,7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1년 대영박물관의 목록이 출간된 초두까지인 현대목록의 태동기

목록발전의 시대구분(2)

- E. R. Hanson과 J. E. Daily의 발전과정

<p>1단계: 재산목록시대 (보관목적, 박물관기능, 식별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llimachus의 Pinakes 목록(BC250년경 ~AD1600년경)
<p>2단계: 검색목록시대 (인쇄술의 발명, 동일문헌 대량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dleian 도서관시대인 1600년경에서 19세기 말까지 → 검색역할로서의 목록은 이후로도 계속 (목록의 존재이유)
<p>제3단계: 자주성과 재평가의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기 초: 각종 현대적 목록규칙 제정. 재생능력 극대화 (LC card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기 후반: 기계화(컴퓨터 및 통신기술 이용)와 국제화(네트워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종이매체 → 전자매체

목록발전의 시대구분(3)

• 김창하의 발전과정

제1단계: 재산목록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1500년• Callimachus의 Pinakes 목록
제2단계: 검색목록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년~1840년• Bodleian 도서관 시대
제3단계: 근대목록법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1년-1907년• 저자명 기본기입, 저자불명 저작의 서명 기본기입원칙, 단체저자 및 형식표목의 개념 등 성립•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 사전체목록규칙 등
제4단계: 현대목록법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04년-1967년• 서지통정의 일관성과 통일성 기하기 위해 규칙의 필요성 인식, 목록 규칙의 국제적 기준 마련• AA Code, ALA Rules, AACR
제5단계: 목록의 국제화와 기계화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8년-1990년대 초• MARC와 OPAC 출현, ISBD, AACR2
제6단계: 인터넷 목록과 미래 목록법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서비스되기 시작

목록발전의 시대구분(4)

• 김남석의 발전과정

제1단계: 재산목록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1450년까지• 점토판, 파피루스, 대나무, 목판, 양피지 등의 기록 재에 의한 자료와 종이재의 필사자료를 포함• 궁전·사원도서관의 목록이 주종을 이루는 시대• 소장 자료의 재산 관리가 목적인 목록시대
제2단계: 검색목록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50년-1840년• 1450년 독일 Gutenberg의 인쇄술 발명으로 인쇄자료 주종 시대• 장서량이 많은 학술단체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목록이 대표적• 자료검색을 위한 도구가 목적
제3단계: 목록의 표준화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1년-1960년• 1841년 Panizzi가 대영박물관장서목록을 위해 세계최초로 목록규칙을 제정 발표한 것이 기점• 세계각지에서 개인, 단체, 국가별 목록규칙에 따라 작성된 목록시대

목록발전의 시대구분(4)

- 김남석의 발전과정

제4단계: 목록의 국제화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1년-1968년•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국제적인 통일을 위해 원칙 결정• 이를 기점으로 국제적 목록규칙이 개정되어 목록이 진행된 시기
제5단계: 목록의 기계화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9년-현재까지• 미국국회도서관에서 MARC II Format이 결정되어 1969년 MARC tape가 배포, 1974년 IFLA에서 목록의 자동화를 위해 국제표준서지기술(ISBD) 제정• 이 시기는 목록규칙이 개정되고 목록의 기계화로 진행되는 시기

COM목록
MARC(1969)
전기전자자료

목 록 의
기계화시대

COM 목록
온라인목록

ICCP(1961)
지재료

목 록 의
국제화시대

COM목록
카드식목록

최초의 목록규칙
(1841년 Panizzi)

목 록 의
표준화시대

카드식목록
가제식목록

지재료
인쇄술발명

검색목록시대

책자형목록
인쇄목록

점토판
Parchment
Papyrus

재산목록시대

점토판목록
Papyrus 목록

요인

목록의 발전

형태

재산목록시대

- 점토판 분류법
→ 에블라왕국도서관
→ Ashurbanipal
- 피나케스
→ 알렉산드리아도서관
- 페르가몬 도서관목록
- 수도원도서관목록
- 15세기 목록

검색목록시대

- Tritheim의 서지
→ 조직서지 창시자
- 게스너의 세계서지
- Trefferus의 목록법
매뉴얼
- Manunsell의 영어판
간본목록
- Bodleian 도서관목록
- Naude와 Dury 제안
- 18세기 목록

근대도서관목록

- Panizzi 목록규칙
→ 대영박물관도서관
목록규칙,
→ 최초의 목록규칙
- Jewett 목록규칙
- Cutter 목록규칙
→ 사전체목록규칙
- Dewey와 목록

현대도서관목록

- Lubetzky 목록규칙
- AA code (영미규칙)
- ALA 목록규칙
- Prussian 목록규칙
(독일)
- Vatican 규칙
- AACR1
(영미목록규칙)
- AACR2
(영미목록규칙개정판)
- AACR2R

Callimachus

- 칼리마코스(그리스어: Καλλίμαχος, 기원전 305?-기원전 240?)
 - 헬레니즘 시대의 시인·학자·비평가.
 - 아프리카의 키레네 출신으로 젊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이주.
 - 고전작가에 조예가 깊어 온갖 장르의 시를 씀.
 - 고대에 있어서도 그의 명성은 대단하였으며 로마 시인(詩人)들 가운데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 주요 작품으로는 <아이티아> <헤칼레> <찬가> <이암보이> 등의 시와 고전작가의 작품에다 설명을 붙인 목록 120권의 <피나케스> 산문이 있음.

질의응답

자료목록법

박종도 ▪ 2021년 1학기 ▪ Week 3-2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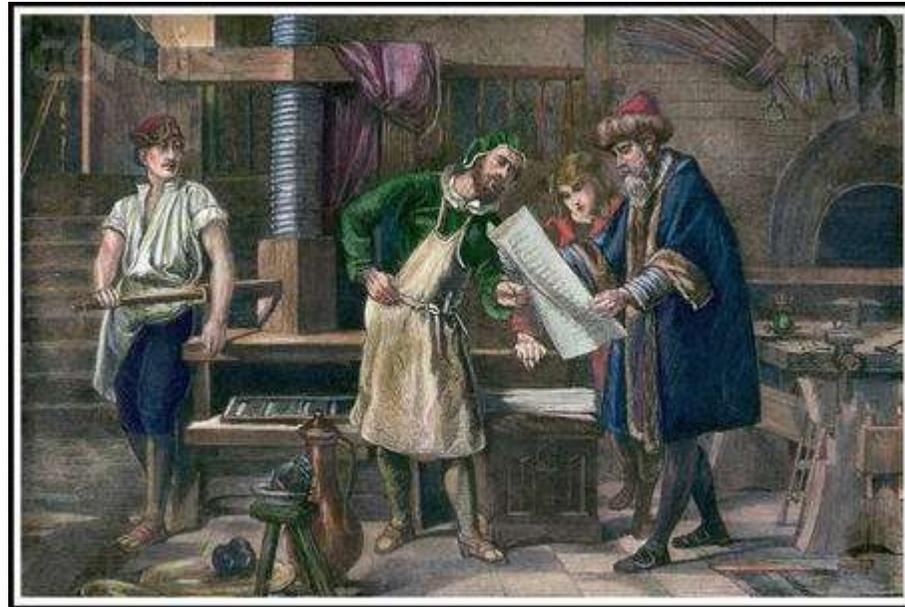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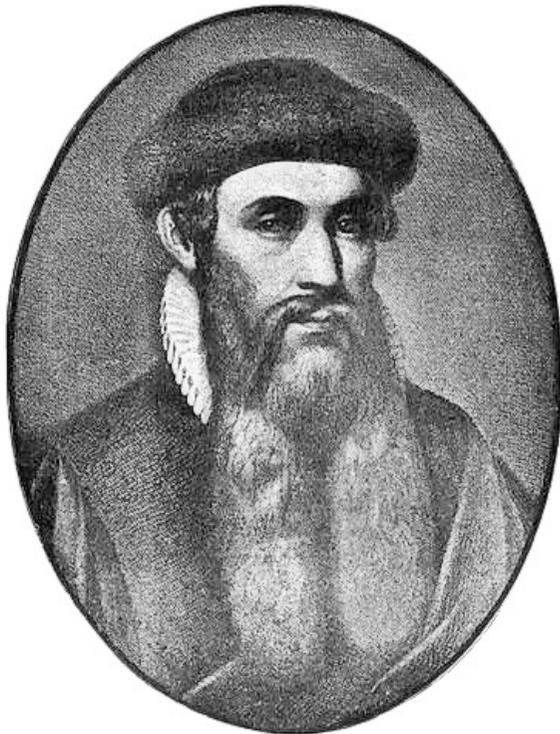
- 제2장 목록조직의 발전
 - 목록발전의 시대구분
 - 재산목록시대
 - 검색목록시대
 - 목록의 표준화시대: 근대도서관의 목록
 - 목록의 국제화시대: 현대도서관의 목록

학습목표

- 목록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시작하는 질문

- 14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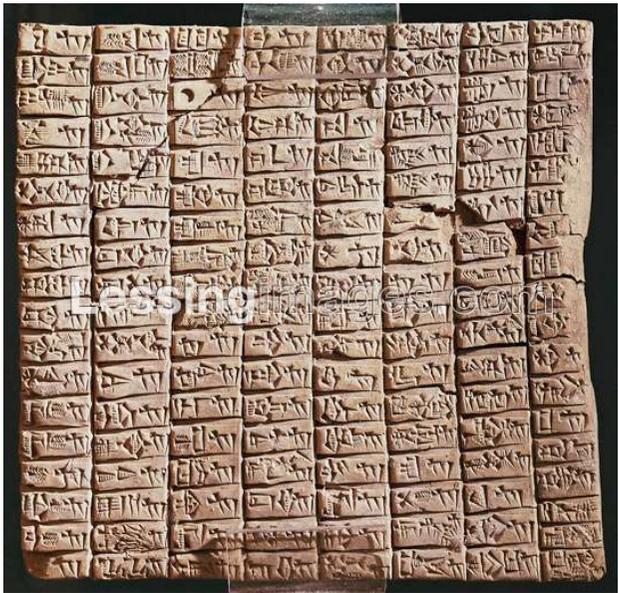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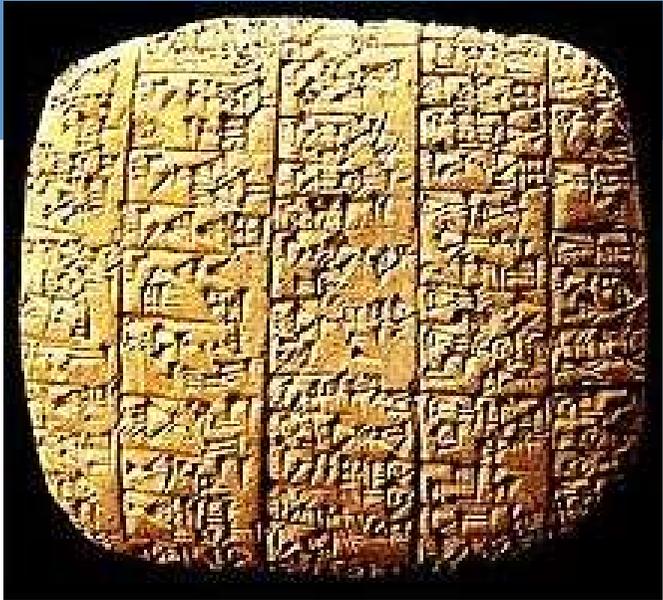
- 에블라(Ebla)왕궁 도서관의 점토판
- Nippur 신전 지하 사원도서관의 점토판
-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의 점토판
- 알렉산드리아의 피나케스(Pinakes)
- Pergamon 도서관 목록

에블라(Ebla)왕궁 도서관의 점토판

1) 왕궁의 입구 한 방을 발굴하여 약 1,000매의 점토판을 발견하였고, 다른 방에서 14,000매의 점토판을 발견하였는데 서가에 보존되고 있어서 왕궁의 도서관임을 확인.

- 하지만 이 도서관에 목록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점토판이 주제별로 모여 있어서 목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https://en.wikipedia.org/wiki/Ebla>
- https://en.wikipedia.org/wiki/Ebla_tablets



Nippur 신전 지하 사원도서관의 점토판

- Nippur(현재의 네팔) 유적지의 지하 사원도서관(monastic library)에서 20,000매가 넘는 점토판이 발굴.
- 수메르인(Sumerian)이 설형문자(楔形文字)로 기록한 것으로 점토판이 주제별로 배열
- → 목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록이 사용되었다고 추측가능.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의 점토판

- 아시리아 니네베 왕궁의 몇 개 독립된 방으로부터 25,000개에 달하는 방대한 점토판문서가 발견된 도서관
- 영토 내의 전 지역의 점토판을 모아 복사하여 소장한 고대의 가장 큰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며 몇 개의 방은 점토판의 주제로 나누어 배열.
- 각 점토판에는 위치를 나타낸 인식표(identification tag)가 있었고, 각 방문 벽에 소장한 내용물의 서가목록이 있었음
- 각 방문 근처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주제명목록 또는 기술서지 같은 제목, 번호, 행수, 색인어 등을 알려주는 사항 등이 있음.
- 오늘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목록, 서지 등의 원형이 될 만한 개념을 이미 도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목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



알렉산드리아의 피나케스(Pinakes)

-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最古)의 목록으로 Alexandria도서관의 장서목록
- Pinakes는 목록사에서 그 근거를 가장 명확히 하고 있지만 권자본의 형태인지 책자형인지 확인할 수는 없음.
- Pinakes 어원 : 그리스어 Pinax의 복수형, Pinax는 1매의 점토판으로 Pinakes는 점토판의 집합을 의미함
- 이집트의 Alexandria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Callimachus는 관장으로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정리와 목록작성 및 문학사 연구에 힘썼고, 시문학 비평가.
- Callimachus는 Pinakes라고 불리는 독특한 분류목록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도서관 목록형식의 효시 ⇒ 이 목록은 Callimachus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그를 분류자요 목록자라 일컬음.

알렉산드리아의 피나케스(Pinakes)

- Pinakes는 Papyrus에 기술된 목록으로 Alexandria도서관의 장서 중 그리스고전의 저술가와 그들의 저작을 수록한 리스트이고, 당시 50만권으로 추정되는 장서의 유지관리 및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자료를 8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한 분류목록.
- 각 저작의 내역, 그 저작의 본문행수, 그리스문헌의 평전, 서지개요를 기재하고 있어 도서관의 장서목록으로 작성되었는지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서목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평범한 서목 이상의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

Pergamon 도서관 목록

- Pergamon 도서관은 당시 Alexandria 도서관과 함께 세계 2대 도서관
 - 이집트의 Alexandria 도서관에서 [Pergamon 도서관](#)의 커짐을 막기 위해 당시 서사재료인 파피루스의 수출을 중지하여 파피루스를 대체할 양피지를 서사용지로 개발.
 - Pergamon 도서관의 장서는 20만권을 소장하였기에 Pergamon 도서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목록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Crates](#)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
 - Pergamon 도서관은 Alexandria와의 '도서관전쟁'으로 점령당해 Alexandria 도서관장서로 이동되는 것으로 끝.

Library of Alexandria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O. Von Corven, 19th century

Country	Egypt
Type	National library
Established	3rd century BC
Location	Alexandria

Library of Pergamum



Pergamon Acropolis, drawn by 19th century German archaeologists

Country	Pergamon
Type	National library
Established	3rd century BC
Location	Pergamon

수도원도서관 목록

- 중세초기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 학문의 감소가 있었던 시기로 수도원도서관에서 필사자료를 보관하여 양피지에 의한 권자본과 고전문헌의 보호계승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근세까지 전함.
 1. Monte cassino 수도원의 도서관목록
 - Beneticto가 창립한 성베네딕트파 수도원의 도서관. 기본적인 장서에 사본을 가하여 장서를 보존.
 2. Vivarium 수도원의 도서관목록
 - Cassiodorus가 수도원을 창설하고 신학교를 설립.
 - 도서관을 설치하여 그리스도교 관계도서와 문학, 이교도들 저작물까지 수집하며 학문의 중요성을 강요하고 학자의 본보기를 보여줌. 필사를 통해서 학문에 관한 존경과 가치 있는 생각을 위한 주석의 안내서를 공급.

⇒ 필사를 통해서 책을 보존해오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산관리를 위한 목록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

수도원도서관 목록

3. Gregorius가 로마 St. Clements교회에 기증한 책의 목록
 - 서문과 기도자명을 함께 대리석판 위에 조각, 기도자들에게 책의 소재를 알려주는 필수적 도구.
4. Alcuin (Alcuinus, c. 735 – 19 May 804) 의 York 도서관 목록
 - Alcuin은 시를 중시하는 시대에 편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
 - 시를 주로 다룬 목록을 저자들과 자료에 대한 서지를 중심으로 편찬된 유일한 형식의 목록.



수도원도서관 목록

- 중세초기목록의 특징
 - 재산적 가치로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유자의 직접적인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소유물의 리스트.
 - 학문적 체계보다는 종교성에 의해 성서와 종교작품이 맨 먼저 위치,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것은 마지막에 놓임.
- 수도원의 기초로서 책의 수집이 시작되어 중세 수도원도서관이 서사실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중세말기 이후로 봄.

수도원도서관 목록

5. 미리오비브론(Myriobiblion)

- Photius가 자신의 대표저서로 편찬한 자료목록으로 중세의 대표적인 목록 중 하나
- Pinakes와 유사한 방법인 서지사항과 전기사항, 서평에 가까운 주석을 포함해서 흥미 있게 요약한 초기적인 목록
⇒ 9~11세기 사이 저작은 근원적인 것보다는 개요나 백과사전적인 것들이 많음
- 초기수도원과 대주교 도서관목록의 시대는 단순히 목록방법과 그 형식을 나타내는 시대
- 나타낼 만한 질서나 순서가 없이 제명을 기재한 조잡한 리스트.
- 그러나 이들 목록을 통해 중세목록은 재산목록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도서관을 중심으로 목록기법절차 발전

6. Durham대성당수도원 도서관의 목록

- 1162~1416년까지 4개의 목록을 편찬
- 주제별로 편성. 배열은 신학 관계서를 앞에, 속서를 뒤에 기록.
- <http://www.durhamcathedral.co.uk/>

7. Glastonbury 수도원의 도서관목록

- 1247년 작성. 저자명중심기입. 저자가 불명일 때 주제에 의한 형식표목기입
- 검색용도가 처음으로 나타남.

8. Registrum Librorum Angliae 종합목록

- 영국 160개의 수도원도서관에서 Franciscan 교파의 수도사들이 편찬한 일종의 종합목록
- 최초의 종합목록으로 하나의 도서관 소장 목록에서 벗어나 교파에 소속된 전체의 도서관 소장목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자료에 관한사항은 간단히 소장일람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끝내 완성을 하지 못함.

9. Dover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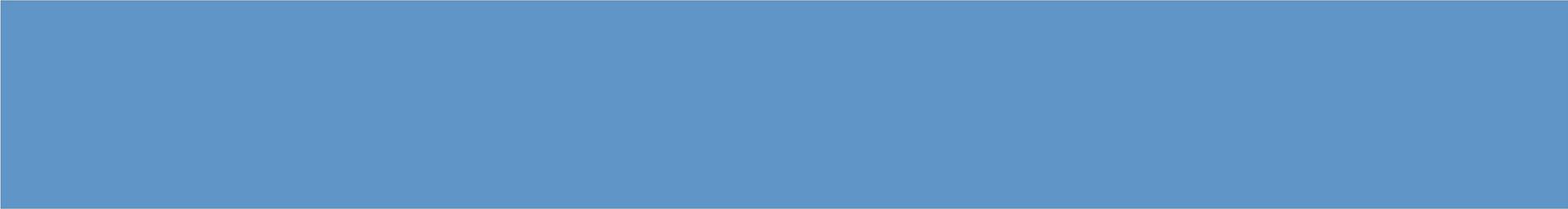
- 성마틴수도원의 도서관목록. John Wytefeld가 편찬. 제 3권에 서명색인을 알파벳순으로 마련하였다. 검색의 요소(색인)가 있음.
⇒ 14세기의 목록은 서가상 위치를 고정(고정식 배가법). 폭넓은 주제에 의해서 정리한 일종의 재고목록의 성격.

10. St. Augustine 수도원의 도서관목록

- 활자 인쇄기술 발명이후 작성된 목록과 중세에서 근세로 전화하는 시기의 목록이란 점에서 의의가 큼.

⇒ 15세기 : 도서와 도서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 서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 개발, 인쇄술의 발명.

- 활자 인쇄기술 발전 → 서사방법에 비해 저작의 생산성 증가
- 원재료의 개량 → 안정된 가격에 의한 자료생산
- 인쇄본의 급증 → 사본의 생산중단
- 도서관의 장서량 증가 → 도서관 운용 재편
- 활판 인쇄술에 의한 서지와 목록작성 : 재산관리 + 서고관리



∴ 중세목록의 특징

- 기능: 재산관리목록 → 검색의 기능 추가
- 편성: 주제별편성 : 신학 ~ 속서
- 기술: 형식화X, 표준화X, 간단한 서지사항의 리스트

검색목록시대(1450~1840)

- 특징
 -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쇄물이 증가 → 고전적인 서지조직붕괴, 서적의 보급을 위한 서적상들의 역할증대, 독서인구증가, 서적의 재산적 희소가치 상실
- 트리트하임(Tritheim)의 서지
- Gesner의 세계서지
- Treflerus의 목록법 manual (1560)
- 마운셀(Maunsell)의 영어판 간본 목록
- 표제지(title page)
- Bodleian도서관의 목록
- 노데(Naude)와 듀리(Dury)
- French Code

트리트하임(Tritheim)의 서지

- Johannes Tritheim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The Liber de Scriptoribus Ecclesiasticis』라는 서지편찬 (1494)
- 성서에 관한 저작들이 주로 열거되어 있으며, 알파벳순 색인을 가진 연대순에 의한 인쇄본 서지 → 본문은 저자의 연대순으로 배열, 권두에 저자의 세레명을 알파벳순 색인으로 첨부
- 982 저자의 7000 타이틀을 연도 순으로 배열.
- 특징
 - 부출기입(added entry; secondary entry)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검색을 이중으로 가능하게 함.
 - 서지의 체제에 관한 원리를 확립하여 목록으로 주제와 관련된 저작을 함께 함.

Gesner의 세계서지

- Gesner는 물리학자로 『Bibliotheca Universalis』 발간 (1545).
→ 이 서지를 통해 Tritheim이 창시한 조직서지의 기법을 완성하고 서지를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서지의 아버지라 불림.
- 세계서지는 당시로서는 최대의 자료리스트로서 어느 도서관의 장서목록도 이를 추종할 수 없는 규모의 자료리스트로 수년에 걸쳐 2편으로 발간.
- 제1편의 서지 구성은 본체를 저자명의 세레명을 알파벳순으로 배열(저자명 색인)하고, 권두에 세레명 이외의 부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참조리스트를 둠.

Gesner의 세계서지

- 서지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제안
 - 자료의 소재표시, 즉 자료의 서가기호를 부여
 - 도서의 크기에 따라 기호표시
 - 서지의 목록접근
 - 서가순 배열에 의한 도서의 색인,
 - 자명의 전치기입에 의한 알파벳순 색인,
 - 소재기호 순에 의한 색인

Treflerus의 목록법 manual (1560)

- 독일의 Augsburg에서 『Methodus』라는 목록법을 위한 편람을 간행. 목록과 색인의 논리적 조직에 관해 5가지 제안
 - (ㄱ) 저자의 알파벳순 리스트
 - (ㄴ) 서가상의 자료배열순
 - (ㄷ)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문헌의 분류순 리스트
 - (ㄹ)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문헌의 주제별 알파벳순 리스트
 - (ㅁ) 파본이나 이용 빈도가 낮은 장서로부터 별치되어 있는 자료 리스트
- 저자, 주제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주제는 체계적으로나, 어순으로 접근이 가능한 조건으로 구성되어야 함.
- 목록법에 관한 제안으로 서가목록을 만드는 것.
- A shelf mark comprised of a letter designation for size, color, and subject.

마운셀(Maunsell)의 영어판 간본 목록

- 영국의 서적상 Maunsell이 『Catalogue of English Printed Books』를 편찬, 일종의 출판물목록 (1595).
 - 영국의 전국서지의 요건을 갖춘 목록
→ 저자, 서명 뿐 아니라 번역자, 인쇄자, 서적상, 발행자, 발행년, 크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격적인 서지작성법이 적용된 목록.
 - 특징
 - (ㄱ) 저자의 성을 전치시켜 성 아래 하선을 하고 이것으로 배열한 점
 - (ㄴ) 서명 중의 주제와 역자로부터 기입한 점
 - (ㄷ) 무저자명 도서는 서명이나 주제로 기입한 점
 - (ㄹ) 참조방법을 용이하게 기본기입에 채용한 점
- ⇒ 이후 영국에서 발행된 많은 유사한 종류의 판매목록 작성에 영향을 끼침.

표제지(title page)

-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표제지는 불완전한 것으로 서명은 라틴어를 사용
- 표제지의 출현은 검색목록시대의 도서정리와 그 내용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현대와 같은 기계목록의 시대적인 발전에 새로운 기술의 통일을 가져오게 함.



〈그림 1-19〉 표제지와 수록정보 및 이에 대한 사례

Bodleian도서관의 목록

- Bodleian도서관에서는 1602년~1604년, 1605년, 1612년~1613년, 1620년, 1635년, 1674년, 1697년 총 7개의 목록을 발간.
- 대표적인 목록
 - (ㄱ) 1605년에 발간된 최초인쇄책자목록 : 간본(刊本, 인쇄본)과 수사본(手寫本, 필사본)을 포함한 유럽 최초의 일반적인 인쇄목록. 학문적인 이론을 근거로 ①논리학, ②의학, ③법학, ④예술 등 4개로 구분하고, 동일 구분 내에서는 저자명을 알파벳순으로 편성.
 - (ㄴ) 1620년에 발간된 목록 : 최초로 저자명과 서명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이고, 최초로 일반을 위한 도서관목록으로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판매됨.
 - (ㄷ) 1674년에 발간된 목록 :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서점을 통해 판매. 서문에서 최초로 세부적인 목록작성 지침을 기술.
→ 이 목록의 현대목록에의 접근: 저자명을 성부터 기입, 통일표목의 사용, 문헌단위의 집중시도, 무저자명도서의 형식과 표목의 기입, 기본기입개념을 명확히 한 것

Bodleian도서관의 목록

- Bodleian도서관의 목록기술은 사본의 경우는 중세의 다른 목록의 기술법과 유사하지만 간본의 기술은 별개의 형식으로 저자명, 표제, 발행지, 발행년, 판형, 서가기호(press-mark)등을 기술한 저자명목록을 채용한 기입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전개.
- 이 목록은 16세기 가장대표적인 목록으로 재산목록에서 검색을 위한 열람목록으로 전환하는데 선구적인 역할, Dewey의 십진분류법의 창안에 큰 영향, 오늘날 서양목록에서 채용되고 있는 저자명기본기입의 근원이 됨.

Naude(1600-1653)의 제안



- Naude는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도서관학자겸 애서가
- 『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eque(1627, Paris, 도서관설립법)』을 저술
 - 이 책은 도서관역사상 최초의 이론서로 그 후 많은 영향을 끼침
 - 도서관이론의 사실상 창시자.
 - 이 책에서 도서관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고 도서관설립과 운영법에 관한 제안에서는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논하였고, 모든 지식을 학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역설. 사립도서관의 설립 억제 주장.
- Naude는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 분류법을 만들고, 검색도구로서 목록의 중요성 강조, 주제명목록의 비치를 권장.
 - 목록에 관한 3가지 제안
 - (ㄱ) 도서관 설립할 때 다른 도서관의 것을 참조.
 - (ㄴ) 목록에는 어떤 자료가 있고, 출판년도, 형태, 크기 등이 확실히 기재 되어야 함.
 - (ㄷ) 가능한 다른 도서관의 목록을 입수하여 독자가 요구하는 도서가 없을 시 도서가 있는 도서관을 찾아 소개.

Dury의 제안

- 2) Dury는 Naude의 사상을 최초로 계승 발전시킨 사람
 - 『Reformed Library Keeper(진보적 도서관장)』이라는 도서관운영법 발표
 - 이 책에서 도서관도 종래의 인습에서 벗어나 장서 이용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아낌과 지지를 받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고, 책은 사람들의 인격을 높이고, 학문을 깊게 하는 도구이며, 사서는 책을 지키고 나르는 사람이 아닌 학문의 안내자요 문화의 전달자요, 이용자와 책의 중개자이다. 왕실도서관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
 - 목록에 관한 제안
 - (ㄱ) 제1안 : 매년 계속 증가되는 장서에 대한 목록의 유지 방법으로 적어도 3년간 인쇄책자목록을 보유판(補遺版)으로 간행.
 - (ㄴ) 제2안 : 목록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를 한정.
 -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게 발행되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만 목록작성하자는 선택적 목록작업(selective cataloguing)을 제안.
- ⇒ 16~17세기 선구적인 목록을 시도한 시대

French Code

- 목록의 역사에서 목록규칙 표준화의 필요성을 가장 명확히 해준 예의 하나.
 - 프랑스 혁명(1789)에 의해 나타난 목록에 관한 소산물
 - 프랑스혁명 때 종교관계 제 기관은 국유화 되어 모든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하였는데 장서를 등록하기 위한 목록작성의 지시서가 French Code.
 - 서지정보의 목록절차, 목록기술법, 서지편성법에 관한 수속과 그 순서가 기록.
 - 목록정보를 작성하는 용지를 쪽지(card)로 할 것을 정함.
 - 목록의 기술은 도서 1점에 1매의 카드에 기록하여 하여 집합된 목록정보의 조직과 처리를 편리하게 하고, 이것들을 함께 총합하여 배열하는 방법을 선택.

French Code

- 최초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 대량의 목록정보 조직과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은 최초.
- 목록규칙이라기보다는 프랑스 국내의 종합목록작성을 위한 작업지침으로 목록작업의 공동화라는 하는 새로운 측면을 목록법의 요건을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

⇒ 18세기는 목록발전에 기초를 다지는 목록의 정착시대로 특성이 결여된 시대

질의응답

자료목록법

박종도 ▪ 2021년 1학기 ▪ Week 4-1

개요

- 제3장 목록조직의 발전
 - 목록발전의 시대구분
 - 재산목록시대
 - 검색목록시대
 - 목록의 표준화시대: 근대도서관의 목록
 - 목록의 국제화시대: 현대도서관의 목록

학습목표

- 근대 도서관 목록의 역사를 이해한다.

목록의 표준화시대 : 근대도서관의 목록 (1841 ~ 1960)

- (1) 파니찌(Panizzi)와 목록규칙
- (2) 쥬윳(Jewett)와 목록규칙
- (3) 커터(Cutter)와 목록규칙

Panizzi와 목록규칙 (1/3)

- 현대적인 목록규칙은 1841년 Panizzi의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에서 비롯되고, 세계 최초의 목록규칙이라는 점에서 도서관목록규칙의 효시가 됨.
- 1841년 7월 91개안으로 된 목록규칙이 첨부된 장서목록 A부 제1권이 최초로 간행
- أب □ P . 정식명칭은 '목록편성규칙(Rules for the Compilation of Catalogue)'이나 속칭 'Panizzi의 91개 규칙(Ninety one Rules)'으로 불리고 있다.

Panizzi와 목록규칙 (2/3)

- 목록규칙의 특색

- ① 저자명기본기입을 원칙으로 서명기본기입을 가할 수 있음
- ② 최초의 조직적인 규칙
- ③ 참조지시와 각 요소의 기술순서 등을 다루고 있음
- ④ 알파벳순으로 된 목록규칙
- ⑤ 단체명을 기본기입으로 인정하고, 성서에 관한 통일표목을 인정
- ⑥ 학술단체, 연속간행물, 사전류, 출판 등을 인식하고 형식표목을 사용
- ⑦ 무저자명 저작은 최초로 서명 중의 초어를 기입
- ⑧ 기입을 일정 크기의 쪽지에 기재하는 것을 정함

Panizzi와 목록규칙 (3/3)

- 목록규칙은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 알파벳순목록(저자, 서명목록)과 주제명 색인에 의한 목록제도의 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미국의 Jewett와 Cutter목록규칙, 그리고 구미의 목록법 원리와 편성 규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영미목록규칙 발전의 모태가 됨.

(2) Jewett와 목록규칙 (1)

- Jewett은 1851년 미국 공공도서관의 종합목록을 위한 표준화와 앞으로의 구상을 목표로 한 『A Plan for Stereo Typing Catalogues by Separate Title, and for Forming a General Stereotyped Catalogue of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를 발표.
- 규칙의 서문에서 Smithsonian협회도서관이 미국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제도의 도서관이 되고, 전 미국의 협동목록 작업의 중심이 되어 종합목록을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의의이고, Panizzi의 91개 규칙의 이념에 공감하고 알파벳순목록의 지지자로서 주제의 알파벳순색인을 부가하는 방법의 채용을 밝힘.
- 제1부의 『Smithsonian목록의 조직』은 12개의 주제가 있으며, 목록계획, Smithsonian목록의 의의, 협동목록작업의 방법에 대해 논함.
- 제2부의 『목록작성의 규칙』은 3부로 구성. 제1부 기술법(12개조), 제2부 기입법(19조), 제3부 배열법(8개조).

Jewett와 목록규칙 (1/3)

- Jewett은 1851년 미국 공공도서관의 종합목록을 위한 표준화와 앞으로의 구상을 목표로 한 『A Plan for Stereo Typing Catalogues by Separate Title, and for Forming a General Stereotyped Catalogue of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를 발표.
- 규칙의 서문에서 Smithsonian협회도서관이 미국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납본제도의 도서관이 되고, 전 미국의 협동목록 작업의 중심이 되어 종합목록을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의의이고, Panizzi의 91개 규칙의 이념에 공감하고 알파벳순목록의 지지자로서 주제의 알파벳순색인을 추가하는 방법의 채용을 밝힘.
- 제1부의 『Smithsonian목록의 조직』은 12개의 주제가 있으며, 목록계획, Smithsonian목록의 의의, 협동목록작업의 방법에 대해 논함.

Jewett와 목록규칙 (2/3)

- 제2부의 『목록작성의 규칙』은 3부로 구성. 제1부 기술법(12개조), 제2부 기입법(19조), 제3부 배열법(8개조).
- Jewett가 발표한 종합목록의 구상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계획이었고 이해하기 힘든 선견이 있는 진보적인 목록체계.
- J. Petter는 Cutter와 함께 Jewett을 근대도서관 관리의 아버지라 격찬.

Jewett와 목록규칙 (3/3)

- 목록규칙의 특징.

- ① 미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공개규칙
- ② 표목과 기술사항을 분리해서 행을 달리한 최초의 것
- ③ 목록의 기술과 저자의 식별에 관심을 둠
- ④ 표목에 있어서 저자의 원리를 단체에까지 확대(단체명 기본기입)
- ⑤ 검색목록의 성격과 서지적인 참고도구로서 양자의 역할을 생각함
- ⑥ 도서관군을 위한 종합목록을 시도한 범국가적인 규칙

→ Jewett의 목록규칙은 Panizzi의 목록규칙과는 달리
공동목록규칙으로 목록의 집중화와 상호협력을 제의한 규칙

→ 상호협력체제의 구상을 위한 선구적인 역할을 목록발전에 큰
기여

Cutter와 목록규칙 (1/6)

1) Cutter의 4대 업적

- 『Boston Athenaeum Catalogue(Boston Athenaeum 도서관 장서목록)』
- Cutter의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 (사전체목록편찬규칙)』
- 저자기호표
- Cutter의 『EC: Expansive Classification (전개분류법)』

Cutter와 목록규칙 (2/6)

2) 『Boston Athenaeum 도서관 장서목록』은 14년에 걸쳐서 완성한 것이 Cutter의 최초의 업적.

- 특징

- ① 주제명기입과 참조기입 사용하여 유사한 주제명이 서로 연결되게 함
- ② 배열순위는 동일 체계 내에서 ①개인저자명, ②지명, ③주제명, ④서명 순
- ③ 서지기술을 상세히 하고 정확하게 함
- ④ 주제명, 지명, 저자명, 서명의 각 기입에 관한 분출기입과 주제명 참조를 통한 이용의 다양화를 기함

Cutter와 목록규칙 (3/6)

3) 『사전체목록편찬규칙』

- 1876년 미국 공공도서관에 관한 특별보고서로 미국 교육국에서 발표된 규칙.
- 저자, 서명 등의 알파벳순목록체계에 주제명기입을 포함시켜 하나의 체계로 배열하고 있는 것이 특색
- 1, 2, 3에 관한 구분과 그 배열방법을 사전체목록의 편성에 중요한 착상으로 활용.

Cutter와 목록규칙 (4/6)

3) 『사전체목록편찬규칙』 (계속)

- 기본적 원칙

- 이용자의 편의성에 관한 원칙-이용자가 목록을 언제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주제를 잘 표현한 말로 선정
- 이미 있는 저자의 특정 도서를 검색하기 위하여 하나로 모아진 저작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저자명에 의한 목록의 배열로 특정 저자의 저작이 한 곳에서 검색되게 해야 함.
- 완전기입, 중간정도기입, 간략기입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조정.(유연성)

Cutter와 목록규칙 (5/6)

3) 『사전체목록편찬규칙』(계속)

- 규칙의 특징

- ① 일반적으로 인식된 미국 최초의 목록규칙
- ② 전체를 사전체목록으로 다루고자 시도한 사전체목록의 원전
- ③ 주제명으로 도서를 탐색할 수 있게 주제명을 구체적인 특수기입으로 한 규칙
- ④ 이용자의 편의를 강조
- ⑤ 참조에 의한 목록의 효율성 높임

- 초판은 책자형 목록용으로 간행, 제2판은 카드목록을 대상. 실제사용에 의해 개정을 거듭한 것은 Cutter의 규칙이 최초.

Cutter와 목록규칙 (6/6)

4) 저자기호표

- 도서기호상의 간략한 저자표시를 위해 저자명을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되게 한 것.
- 1878년 숫자로만 저자명 표시, 1880년 저자명 중성의 두문자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순차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2자리로 전개, 1896년 1969년에 재편성.
- Cutter의 저자기호표는 계속 개정된 가장 대표적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됨.

Dewey와 목록

- Dewey는 분류법에 못지 않게 목록에도 업적을 남김.
- 도서목록을 위한 표준카드 발표. 『Library School Rules (도서관학교목록규칙)』을 간행
- 목록발전에 미친 영향
 - 현재의 5×3인치 표준카드의 제창과 보급, 카드목록작성을 목적으로 한 미국 내 공동목록규칙의 제정으로 협동목록작성을 가능하게 함
 - 미국국회도서관의 인쇄카드봉사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의 역설
 - 영국과 미국의 공동목록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추진

*Dewey는 목록을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목록의 통일화 국제화 등 사상을 남기는데 큰 기여

목록의 표준화 시대 – 종합 정리

- ❖ 목록의 표준화 시대는 목록이 형식적이지만 국제적 목록은 등장하지 않음.

질의응답

자료목록법

박종도 ▪ 2021년 1학기 ▪ Week4-2

개요

- 제3장 목록조직의 발전
 - 목록발전의 시대구분
 - 재산목록시대
 - 검색목록시대
 - 목록의 표준화시대: 근대도서관의 목록
 - 목록의 국제화시대: 현대도서관의 목록

학습목표

- 현대 도서관 목록의 역사를 이해하고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목록의 국제화시대

- 현대도서관의 목록(1961~1968)

(1) Lubetzky와 목록규칙

- Lubetzky는 ALA목록규칙 제2판을 개정할 것을 결정한 LC에 초청되어 『National Union Catalog』를 출판하는 계획의 책임자로 일함.
- 1960년에 Code of Cataloging Rules (CCR)이라는 독자적인 목록규칙을 제정 출판.
- CCR의 원칙 : 1961년 10월 IFLA주최로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에서 의안의 골자로 채택될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인 목록의 추세에 부합되는 규칙

(2) 영·미규칙 (AA Code)

- 1900년에는 Dewey의 제안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목록규칙의 통일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
- 1908년 영국도서관협회와 미국도서관협회의 공동협력에 의한 최초의 국제적인 목록규칙 『AA Code』가 출판.
- AA Code는 미국과 영국의 협동목록규칙이기는 하나 총 174개조 중 8개 조문은 양국이 각각 자국에 맞도록 규정화하여 미국판과 영국판으로 발행.
→ 미국은 Cutter의 이론을 목록규칙에 반영, 영국은 Panizzi의 이론을 반영하기 때문
- 학술도서관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목록법을 싹트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음.

(3) ALA목록규칙

- 1930년대 많은 도서관이 LC card를 사용하게 되어 AA Code 개정 필요성 고조.
- 1941년 AA Code에 연속간행물, 공문서, 종교단체출판물, 무저자명도서, 사전이 추가된 『ALA목록규칙 1941년 예비판』이 간행.
- 이 규칙은 상세한 규칙이긴 하나 단순히 조문을 증가시켜 원칙 없이 경험을 규정화하였으며 예외 규칙이 많고 복잡.
- 1949년에 제 2부를 포함시키지 않는 제 2판(일명 그린북(서지기술))이 총 158조로 간행.
- 같은 해 미국국회도서관에 발전시켜 『기술목록규칙』출판(일명 레드북(서지기술을 제외한 부분)).
- 『ALA목록규칙』 : ALA의 『저자명 및 서명기입을 위한 목록규칙』과 LC의 『기술목록규칙』
AA Code(1908) → ALA목록규칙(1949) → AACR(1967) → AACR2(1978)

(4) Prussian 목록규칙

- 독일의 목록규칙에 관한 필요성은 1890년대에 독일의 종합목록「Prussian Union Catalogue」에 의해 나타났고, 1908년에는 기본판이 발행.
- 기본판은 Australia도서관 사서 Osborn이 서문을 첨가해서 번역판을 발행한 1938년까지 영어권의 국가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못했고, 이용되지도 않음.
→ 『Prussian Instruction (PI)』라고도 함.
- PI는 주로 독일어권의 도서관목록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어권의 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함.

(4) Prussian 목록규칙

- PI의 특기할 사항

- ① 단체저작을 무저자명으로 서명을 중심으로 기입하거나 개인저자로 다름(단체저작인정X)
- ② 작가불명의 무저자명저작은 표제지로부터 분명한 서명을 선정하여 이를 배열의 기준으로 함
- ③ 익명의 저작은 익명으로 기입하고, 불확실한 것은 저자의 본명 아래 기입
- ④ 연속간행물은 편자가 있는 경우라도 무저자명의 저작과 동일하게 취급
(연속간행물의 편자 인정X)

⇒ AA Code와 PI는 상이한 점이 많았지만 1961년 파리의 목록법원칙회의(ICCP)에서 통일될 수 있는 원칙이 결정될 때까지 50년 이상을 서방 목록의 중심 되는 규칙으로 활용

(5) Vatican 목록규칙

- 일명 Vatican Code라고도 불림. Vatican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의 재조직을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사전체 목록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고, 『Rules for the Catalog of Printed Books』라는 제명으로 편집, 규칙으로 발행.
- 이 규칙은 그 전까지 발간된 영미판의 목록규칙을 집대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규칙(미국의 편향성이 가장 짙음)

(6) 영미목록규칙(AACR)

1) AACR1

-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의 도서관계 전문인이 수년의 노력으로 재래의 부분별로 된 여러 목록규칙을 수정 개편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회한 세계최초의 목록규칙.
- 1967년 미국도서관협회(ALA), 미국국회도서관(LC), 영국도서관협회(LA), 캐나다도서관협회(CLA)의 4개 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목록규칙을 출판. 명칭은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의 4개 단체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AACR:영미목록규칙)』이라 함.
- 이 중 영국, 미국, 캐나다 3국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분리 삽입해서 미국과 캐나다는 226개 조문으로 된 400면의 북미판(North American text), 영국은 216개 조문으로 된 327면의 영국판(British text)을 각각 출판.

(6) 영미목록규칙(AACR)

1) AACR1 (계속)

- 1841년 영국 Panizzi의 목록규칙에서부터 1949년 ALA목록규칙에 이르는 영국과 미국의 목록규칙 사상을 총망라한 결정판.
- 1961년 10월 ICCP에서 채택된 원칙성명(CCR)을 반영시킨 최초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

⇒ ICCP에서 채택된 원칙 성명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기는 하나 당시까지 나타난 목록규칙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규칙으로 한국의 목록규칙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목록규칙의 근간이 됨.

2) AACR2

- 1967년 AACR이 발행된 후 목록의 기계화와 정보유통을 위한 목록의 국제화는 규칙의 개정이 불가피.
- 개정 동기
 - ① LC가 1966년부터 MARC개발에 착수하여 1969년 3월 본격적인 MARC card와 tape의 배포봉사를 시작한 LCMARC의 개발.
 - ② IFLA가 1961년부터 국제서지기술의 통일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1974년 『국제표준서지기술(단행본)(ISBD(M))』 발행.
 - ③ ISBD에 의한 세계과학정보 유통체제의 구상.

2) AACR2 (계속)

- 1974년 3개국 5개 단체(ALA, LC, CCC, BL, LA)로 AACR의 개정을 위한 합동조정위원회(JSCAACR)가 구성.
- 1978년 12월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d ed.(영미목록규칙2판)』를 영국, 미국, 캐나다가 함께 단권으로 출판

2) AACR2 (계속)

- AACR2의 목적과 정책

- ① 북미판과 영국판을 단권으로 일치
- ② 규칙을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표현
- ③ 기계화에 일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개정과 변화를 text 속에 결합
- ④ 개정에 참여한 단체의 제안과 다른 나라의 제안도 받아들임
- ⑤ 영국, 미국, 캐나다 외의 나라들에게 사용에 편리하도록 AACR2를 국제적 이익에 대비하는 일, 즉 국제적 목록규칙에 기여

2) AACR2 (계속)

- AACR2의 특징

- ① AACR의 목록규칙 전체의 구성을 변화시켜 제1부는 기술, 제2부는 표목, 도서와 비도서자료의 규정을 공통으로 쓸 수 있게 함
- ② ICCP의 원칙에서 불충분한 기입과 참조의 설명을 이해가 쉽도록 함(더 쉽게 작성)
- ③ 기술부의 제 1장 서지기술의 수준을 3등분
- ④ 기술에 관한 구두법은 ISBD에 준함

3) AACR2R

- AACR2개정을 위한 합동위원회에 ACOC(Australian Committee on Cataloguing)가 초청
-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4개국 6개 단체 : ALA, BL, CCC, LA, LC, ACOC). 개정작업으로 1988년 AACR2의 1988 Revision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 판의 약자를 AACR2R이라고 함.
- AACR2R은 AACR2의 기본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음. 개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을 바로 잡고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수정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규칙을 완전히 새로 바꾸었으며, 새로운 규칙과 예를 추가.

4) AACR2. Revision 2002

- 1999년과 2001년 각각 수정판으로 출간된 2세트의 개정판을 가제식 형태로 합친 것.

질의응답

자료목록법

박종도 ▪ 2021년 1학기 ▪ Week5-1

개요

- 제3장 목록조직의 발전
 - 목록발전의 시대구분
 - 재산목록시대
 - 검색목록시대
 - 목록의 표준화시대: 근대도서관의 목록
 - 목록의 국제화시대: 현대도서관의 목록
 - 동양목록의 역사
 - 중국목록의 역사
 - 한국목록의 역사

학습목표

- 동양목록의 역사를 이해한다.

중국의 목록

칠락

- 한나라
- 유희완성
- 집략
- 육예락
- 제자락
- 시부락
- 병부락
- 수술락
- 방기락

칠지

- 송나라
- 왕검 정리
- 칠락 모방
- 경전지
- 제자지
- 문한지
- 군서지
- 음양지
- 운예지
- 도보지
- 부록 : 도경록,
불경록

칠록

- 양나라
- 원호서 편찬
- 칠분법의 대표
- 칠락+칠지참고
- 경전록
- 기전록
- 자병록
- 문집록
- 술기록
- 불법록
- 선도

사고전서

- 청나라
- 사분법의 완성
- 중국최대규모의
총서
- =사고전서총목
- 경, 사, 자, 집

(1) 칠분법

1) 칠략(七略)

- 동양 최고(最古)의 목록으로, 전한(前漢)의 성제(成帝)가 유향(劉向)에게 편찬을 명하여 그의 아들 유흠(劉歆)에 의해 완성됨
- 육예략(六藝略), 제자략(諸子略), 시부략(詩賦略), 병서략(兵書略), 수술략(數述略), 방기략(方技略)과 현재 분류법의 총류에 해당하는 집략(輯略)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집략 : 서론 격의 총류와 같음
 - ② 육예략 : 역, 서, 시, 레, 악, 춘추, 논어, 효경, 소학 등으로 삼황오제 시대로부터 형성된 전통적인 중국의 사상을 모은 유교의 경전류.
 - ③ 제자략 :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횡가, 잡가, 농가, 소설가 등 타 여러 학자들의 사상을 다룬 철학류와 경서의 재해석
 - ④ 시부략 : 굴부, 육부, 손부, 잡부, 가시 등 운문체의 문학서를 모은 문집류, 문학
 - ⑤ 병서략 : 병권모, 병형세, 병음양, 병기교 등 군사와 병법문제를 다룸
 - ⑥ 수술략 : 천문, 역보, 오행, 시귀, 잡점, 형법 등 천문, 수학 등의 각종 예언서
 - ⑦ 방기략 : 의경, 경방, 방중, 신선 등 의학, 약학관계와 예술

(1) 칠분법 (계속)

2)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

후한(後漢)의 반고(班固)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유희의 칠락을 토대로 하여 13,269권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음

(1) 칠분법 (계속)

3) 칠지(七志)

- 송나라때 비서승(秘書丞) 왕검(王儉)이 비각에 소장된 도서를 정리하여 편찬한 사부관수목록이다. 유흠(劉歆)의 칠략을 모방하였고 부록으로 불경록과 도경록을 수록하고 있음
- 경전지(經典志), 제자지(諸子志), 문한지(文翰志), 군서지(軍書志), 음양지(陰陽志), 술예지(術藝志), 도보지(圖譜志)

4) 칠록(七錄)

- 양(梁)나라 때 완효서(阮孝緒)에 의해 편찬된 12권으로 목록임
- 경전록, 기전록, 자병록, 문집론, 술기록, 불법록, 선도록으로 구성됨

(2) 삼분법

- 불교의 삼장(三藏)분류법으로, 지승(紙繩)이 '개원석교록'에서 체계화함.
-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셋을 잘 간직하여 담고 있는 광주리
 - 경장(經藏): 석가모니의 교설을 기술한 문장의 전부를 포함한 것
 - 율장(律藏): 불교도들이 지켜야 할 실제 생활상의 규칙과 작법 그리고 교단의 계율규정에 대한 설명집
 - 논장(論藏): 후세의 불교도가 경장과 율장의 정신을 설명하고 철리(哲理)를 기술한 것을 총칭하는 것

(3) 사분법

학술이 발전하면서 전적의 분류법은 경전을 주축으로 그 부문이 간략하게 정리되는 경향이 나타나 사분법이 탄생되었다

1) 중경부(中經簿)

- 위의 비서랑(秘書郎) 정묵(鄭默)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사분법의 효시. 현존X(수서경적지 추측)

2) 중경신부(中經新簿)

- 진나라 초에 순욱(荀勗)이 편찬한 것으로 중경부를 근거로 하여 만들. 중경신부는 문헌을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의 사부로 나눈 각각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순으로 문헌을 수록함. 현존X(수서경적지 추측)

3) 진원제서목(晉元帝書目)

- 동진(東晉) 초에 저작랑(著作郎) 이충(李充)이 편찬함. 이 목록에서 사분법의 토대가 확립됨

4) 수서경적지(隨書經籍志) : 당 태종 정관(貞觀) 15년에 위징(魏徵) 등이 편찬한 목록으로 사분법의 토대가 확립됨

5)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 청나라 고종의 명으로 10년에 걸쳐 전국에서 수집한 도서를 선별(?). 내정사각(內廷四閣) 중의 하나인 문연각(文淵閣)의 총목임

- 경부(經部)

- 역류, 서류, 시류, 예류, 춘추류, 효경류, 오경총의류, 사서류, 악류, 소학류

- 사부(四部)

- 정사류, 편년류, 기사본말류, 별사류, 잡사류, 조령주의류, 전기류, 사초류, 재기류, 시령류, 지리류, 직관류, 정서류, 목록규, 사평류

- 자부(子部)

- 유가류, 병가류, 법가류, 농가류, 의가류, 천문산법류, 술수류, 예술류, 보록류, 잡가류, 유서류, 소설가류, 석가류, 도가류

- 집부(集部)

- 초사류, 별집류, 총집류, 시문평류, 사곡류

한국 목록의 역사



(1) 불경목록

1) 대장목록(大藏目錄) = 초조대장목록

- 초조대장목록은 현종 2년(1011)부터 문종 37년(1083) 사이에 최사위(崔士威)에 의해 편찬됨. 이 목록은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 최고(最古)의 목록이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재조대장경의 대장목록에 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

2)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

- 선종 7년(1090)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편찬.
-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목록임
- = 의천록, 교장총목, 속장목록이라고도 함
- 분류체계
 - 1단계 : 경, 율, 논 의 3부로 구분, 다음에 대승, 소승 순으로 배열
 - 2단계 : 의천의 교학관에 따른 중요도순에 따라 경전명을 배열
 - 3단계 : 저작의 연대순으로 배열

3)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 : 재조대장목록

- 대장목록이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5년(1248)까지 다시 재조한 대장경(팔만대장경)의 목록. 대장경목록은 초조대장목록에서 누락된 것을 보충한 목록임. 분류, 목록 체제는 초조대장목록과 같음. ⇒ 고려시대의 목록

(2) 조선의 목록

1) 고사촬요책판목록(故事撮要冊版目錄)

- 조선 명종 9년(1554)에 어숙권(魚叔權)이 조선팔도에 산재한 책을 조사하여 편찬한 것임 (지역별, 서명일람형식)

2) 고책판소재고(古冊版所在考)

- 조선 영조때 임진왜란 후 전국에 산재한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한 목록

3)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

- 조선 인조 15년(1637)에 김휴(金休)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흩어진 문헌을 모아 편찬된 해제서목임. 신라때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경상도지방의 문헌을 주로 수록하였으며 그 체계는 고대 중국분류법인 사분법을 개수(改修)한 것임
- 주제별로 나누어 찬술한 최초의 도서해제집
- 목록체제는 서명을 먼저 기입하고, 다음 행에는 편찬자의 약전, 해제 및 서발문을 인용하여 초록하는 형식으로 기술

(2) 조선의 목록

4) 규장총목(奎藏總目)

- 조선 정조 5년(1781)에 서호수가 편찬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목록 중 규모가 가장 큼.
- 한국 최초의 장서목록이며 분류체계는 경, 사, 자, 집의 사부분류체계임.

5) 누판고(縷版考)

- 조선 정조 20년(1796)에 서유구에 의해 편찬된 목록
- 도서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판한 판본만을 수록한 목록

6) 한국서지(韓國書誌)

- 조선 고종때 프랑스의 외교관으로 부임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이 편찬한 목록
- 고대분류체계인 4분법을 따르지 않고 9분법을 따름

(3) 일제하의 목록

- 일본인에 의해 도서관이 설립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에 일본 본국에서 제정된 편목법이 그대로 사용됨.
- 이 시대는 한국적인 목록의 특성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임.
- (예) : 화한서목록편찬규칙(和漢書目錄編纂規則)
 - 일본도서관 협회에서 제정 발표
→ 1931년 8월 한국 최초의 조선교육회 주최 도서관강습회에서 「화한서목록법(和漢書目錄法)」강의

(4) 조선동서편목규칙

- 박봉석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정리와 조선도서관학교의 강의용 교재로 1947년에 초안한 규칙을 개정하여 조선도서관협회의 규칙으로 인정받아 발행한 것(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편목규칙)
- 1947년『동서편목법: 강의용 초안』이라는 규칙을 등사판으로 발간. 『조선동서편목규칙』은 『동서편목법 : 강의용초안』을 개정 증보한 목록규칙.
- 전체 10장 220조로 되어 있고, 서, 예언, 용어 해의, 부록으로 구성.
- 특색
 - ① 한국인에 의해 제정되어 협회에서 공인한 최초의 목록규칙
 - ② 서명기본기입을 원칙으로 채택
 - ③ 동서를 위한 규칙
 - ④ 목록규칙과 편목법을 겸한 규칙
 - ⑤ 카드의 기술을 3단식으로 함
 - ⑥ 기술사항에 부출지시가 없고, 작성해야 할 목록의 일정한 형식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 ⑦ 부표에 목록작성에 필요한 많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에 활용하게 함
- ★ 한국 도서관계의 자료조직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한 점에 큰 의의. 하지만 동서에 한정된 규칙
→ 서명기본기입을 원칙으로 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서양목록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에 밀려 영향력 행사를 못함.
→ 그러나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목록규칙, 협회에서 공인받아 전국에 보급된 최초의 규칙이라는 점에서『조선도서분류표』와 함께 도서관 자료조직의 역사적 배경으로 연구대상이 됨.

(5) 한은도서편목법

- 고재창이 한국은행도서관의 도서정리를 위해 편찬.
- 이 편목법의 구성은 총 6장 270조로 표목과 기술로 대별하고 있으며, 서표(書標) 기입에는 기본기입과 부기입으로 대별하고, 카드는 2단식 목록형식
- 의의
 - ① 한국 최초로 동서와 양서의 공용을 위한 규칙
 - ② 저자명기본기입을 원칙으로 한 규칙
 - ③ 표목과 기입을 구분하여 규정화한 규칙
 - ④ 목록형식을 표목을 통일하여 동서와 양서의 목록이 함께 배열 편성되게 한 규칙
- 한국은행도서관에서만 사용되어 공개적인 규칙으로 활용되지는 못함.
→ 하지만 한국의 근대적인 목록의 이론을 최초로 도입한 규칙.

(6) 동서편목규정

- 박희영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한 도서관실무강습회에서 강의를 위한 교재. 1955.
- 『조선동서편목규칙』의 3단식 목록형식과 『한은도서편목법』의 저자명기본기입원칙을 혼합
- 표목과 기술로 구분하여 규정화한 이론을 전국적으로 보급한 규칙.
- 6장 146조로 된 77면의 등사판으로 구성 → 협회에서 인정한 목록은 아님.

(7) 한국목록규칙(KCR)

1) KCR1

- 소장자료의 정리를 위한 분류, 목록의 통일된 국가적인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어 만듦.
- 1961년 파리국제목록원칙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찬동.
- 한국목록규칙 작성을 위한 7가지 원칙
 - ① 표목의 형식을 한글만 사용
 - ② 외국인명, 서명 등은 번자표목으로
 - ③ 한정어는 사용하지 않음
 - ④ 구두점을 사용
 - ⑤ 성과 이름 사이는 반드시 콤마를 사용
 - ⑥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한다」, 「할 수 있다」를 사용
 - ⑦ 실례는 2단식방법에 의하여 표시
- 1962년 『한국목록규칙(안)』을 등사판으로 발행
- 1964년 총 165조로 된 114면의 『한국목록규칙』초판을 발간.

2) KCR2 : 1966년 총 142개조의 『한국목록규칙, 수정판』이 발행. 표목, 기술 모두 표기.

• 3) KCR3

- 1969년 『한국목록규칙 제3판(KCR3)』을 위한 개정에 착수
- 1983년 '기술·표목올림지시편'이 출판
- 본래 기술, 표목, 배열편까지 포함하는 규정을 단권으로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술편'과 '표목올림지시편(기본기입은 없고 부출만 있음)'을 첫째 권으로 발행한 미완성판.
- 특성
 - ① KCR1, KCR2는 동양서를 위한 것이지만, KCR3은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의 목록규칙
 - ② ISBD의 구두법을 채용
 - ③ 한국인명의 표목에서 성과 이름 사이에 반점을 찍지 않음.(단 외국인명은 사용)
 - ④ 단일 기입제 목록을 위한 표목선정은 Unit card의 첫머리 요소로 서명을 직접표목으로 삼도록 규정. 별법으로 저자명 기본기입법도 준거하여 규정.
- 의의
 - ① ISBD이론을 도입하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서명줄머리잡기형식으로 규칙화
 - ② 동양서와 서양서의 공용의 목록규칙으로 조직
 - ③ ISBD의 국제적인 기술규칙이론을 도입 (한국최초로 ISBD 적용)

4) KCR4

- 2003년 『한국목록규칙 제4판』 발행
- 특징
 - ①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한 규칙
 - ② 여러 유형의 자료를 수용. 기술의 대상을 크게 확장 (비도서자료에도 적용)
 - ③ 화상자료와 영상자료를 통합한 규칙을 제정
 - ④ 표목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
 - ⑤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저자 등)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X
 - ⑥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음
 - ⑦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음
 - ⑧ 규칙의 전개방식이나 체제, 표현 등에서 우리의 사고와 언어관습에 맞는 형식을 다수 도입, 이와 더불어 목록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에 대한 해설을 부록으로 제시
- 4판은 최초로 단행본을 비롯한 비도서 자료영역을 포함하여 자료를 유형별로 규정화한 최초의 규칙.
 - 전자목록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목록규칙.
 - 지금까지 발행된 목록규칙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규칙.
 - 표목부 즉 접근점에 대한 규칙이 제대로 규정화되지 않은 것이 약점

(8)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8)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KORMARC에서 사용하는 기술목록 규칙)

- 한국문헌자동화목록 형식의 종류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고서용, 비도서용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은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의뢰 각 영역별로 연구위원을 달리하여 의뢰하였기 때문에 Format이나 기술규칙 간에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음
- 한국도서관협회의 KCR과 연계되어야 함.

질의응답

- 단위 카드 Unit card

- 목록을 편성할 때 필요한 저록을 몇 장씩 복제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카드. 필요한 서지정보가 완전히 기재된 기본적인 카드로서, 이 카드를 복제하여 표목을 추가해서 개개의 저록을 작성할 수 있다. 기본저록방식에서의 기본저록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저자 또는 표제에 대한 기본저록표목이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표목을 다시 그 상단에 추가 기재하면 복제된 카드에는 이중 표목이 존재하게 된다.
- 목록을 편성할 때 필요한 저록을 몇 장씩 복제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카드를 단위카드(unit card)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기본저록카드가 곧 단위카드

질의응답

- 기본저록(main entry)
 - 도서관의 목록저록 중 그 도서의 검색과 식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완전한 저록. 카드목록의 경우 기본저록카드라고 한다. 개개의 도서관자료에 대해서 하나의 카드에만 그 자료에 관한 완전한 기술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표목(올림말)을 기재한 저록을 작성하고, 부출표목이나 분출표목 지시를 기록하여 이 지시에 따라 다른 필요한 저록을 작성하는 방식을 기본저록방식이라고 한다.